언론 보도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방한 마감 기자회견 인사 말씀**

2015년 6월 25일, 서울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저의 인권최고대표 부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이고, 유엔인권최고대표가 1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에온 것입니다.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먼저 지난 해 사상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사무소 개소를 위한 것. 두 번째는 한국 관련 다양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사무소를 유치해 주시고 따뜻하고 효율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저의 방문을 가능하게 해주신 한국정부에 감사합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특히 현재 한국도 이사국인 제네바 인권이사회(HRC) 내에서 증가하는 인권 관련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방한이 우리의 이미 밀접한 관계를 더 강화시켰다고 믿고, 궁극적으로 두 한국에서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희망합니다.

한국정부가 외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 외교관, 언론, 민간단체와 일반 대중이 참석하게 함으로써 개소식에 부여한중요성을 목도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소 개소식이 이렇게 큰 뉴스가 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 같은 것, 즉 북한 내 인권상황의 괄목할 향상을 간절하게 보기 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또 새 유엔 인권사무소가 하루 아침에 상황을 극적으로바꾸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믿습니다. 즉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각할 수 없었을 돌파구가 되었고 조사위원회(COI)가 만들어져 2014년 2월 강력하고 충격적이며 극도로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인 나비 필레이(Navi Pillay)는 1년 전 HRC에서 국제적인 COI 창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유발하는 새로운 전쟁이나 특정 잔혹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례적인 요청이었고 필레이 여사는 바로 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가공할 인권침해를 겪어왔으나 대부분 외부 세계는 북한에서 일어나는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핵 문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COI의 표현대로 “이 침해사례들의 심각성, 규모 및 성격은 현대세계에서 비견할 데가 전혀 없는 국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COI 위원들은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았고 국가의 최고수준에서 만들어진 정책들로 광범위한 반 인류 범죄들이 북한에서 자행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동 보고서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제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음.인간의 극한 상상력을 너머 자행되는 조직적인 잔혹성과 비행(卑行)이 낳는 가슴 아픈 개인적 비극을 폭로하는 용감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공개청문회 뿐만 아니라 공개발언을 두려워하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피해자240명과의 회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젠가 법정에서 검사들이 활용한다면 중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COI 덕분에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제 확고한 국제적 안건이 되었고 HRC, 유엔총회, 안보리 등 인권을 다루는 유엔의모든 주요 기구에서 정규 토론 주제가 되었음.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등의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 중 일부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아직 실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엔서울인권사무소가 현실이 되고 1개월 여 내로 완전한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사실은 COI의 작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징표입니다.

또 북한정부도 반응을 보이고 있음. 어떨 때는 이 반응이 분노의 협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음. 일례로 각국의 인권기록을 다른 국가가 검토하는 소위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과정에도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계속되어 어떤 구체적 결과를 낳는 순간까지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사무소의 목적은 감시하고 보고하고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 뿐만은 아님. 민간 사회, 난민과 탈북자, 그리고 이 지역 정부들과 소통도 할 것입니다. 접촉유지는 필수입니다. 책임소재 규명도 필수입니다. 이들은 서로 반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북한 같이 열악한 사회가 언젠가 회복되고 번영을 시작하려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유사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수십 년에 걸친 흉작과 만성적 경제 실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극한 위험을 피하려면 북한 정부는 이웃국가들과 인도주의 기관들과 접촉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식량, 건강 등 사회 및 경제적인 권리는 더 큰 주목을 받는 민권과 정치적 권리만큼 중요합니다. 70% 가량의 북한 주민이 식량이 부족하고모든 아동 중 1/4이 만성적 영양실조라는 추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일부 문제는 직접적으로 남한에도 영향을 주고, 일본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국가에도 영향을주는 바 최소 881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본 피랍자 가족과 두 한국 사이의 수십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상봉을 신청한 무려 13만 가족 중 겨우 2천명만 잠시 얼굴을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신청자 중 62,000명에 달하는 거의 절반이 상봉은커녕 수십 년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크게 대조적으로 한국은 30여년 전 민주국가가 된 이래로 아주 성공적으로 변모해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이 됩니다. 한국의 인권 관련 성적도 경제성장과 나란히 급격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담이 되어 다른 전환기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모델이 됩니다.

세계 다른 곳의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아직 미해결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만난 시민단체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한 바 많은 문제는 국제 인권 조약들을 비준한 국가들의 성적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여러 유엔 조약기구가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우려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 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948년 국가보안법(NSA)에 따른 표현과 집회의 자유 관련 제한조치들입니다. 보안법 7조의 애매한 표현 중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은 “반 정부 조직”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논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인권옹호자들과 비위협적 단체들이 부당하고 부적절한처벌을 받도록 했고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을 차단하거나 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공익을 해친다”라거나 “잘못된 보도” 같은 애매하게정의된 개념을 사용하는 정부기관들에 의한 무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와 공익정보의 전파에 대한 우려가 정기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우려는 특히 노조 활동 관련 결사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중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상시적인 위협을 받고 살고 있어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보안법 개정은 그 과정의 필수 부분입니다. 한국민의 세련된 발전과정은 사회가 잘못된 법에 의존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와 다른 견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위협을 막으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보 조치들을 계속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움직임과 통신을 국가가 아주 쉽게 염탐할 수 있는 시대에 진정한 안보의 필요성과 사생활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21세기 많은 민주국가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딜레마이고,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국가정보원이 특히 인터넷 접속과 소셜 미디아를 침범해 감시한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도 기술발전에 따라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그 해석 및 당국의 집행이 계속 재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소수집단의 보호 관련 법에 일부 공백이 있는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사용주들에 의해 계속 착취와학대를 당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임. 이런 점에서 더 낫고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반 차별법은 한국에 분명히 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더 넓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해왔습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지역 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와 서울 같은 도시는 “인권 도시”라는 강력한 개념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약 한 시간 전에 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국무위원 및 정, 관계 고위급 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어제 만났던 김복동, 길원옥, 이용수, 이 세 분의 여성이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들려준 개인적인 사연들은 2차 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수십 만 명의 “위안부”를 둘러싼 비인간적인 역사적 논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이 여성들은 주중에 많게는 하루 15차례, 주말이면 하루 50차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제 머리로 계산해 보니, 벌어진 일의 심각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 노예기간 동안 일부 여성과 여아는 수천 번에 걸쳐 강간을 당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해방된 뒤에도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치심 속에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가족들의 냉대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 받은 이들도 있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아직도 마음 속에 한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 세 여성은 아주 기품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저와 함께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분들은 제 손을 잡아주셨고, 또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다른 나라 여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Butterfly Fund)”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이 취한 일련의 의미 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고통을 적절하고도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종분석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자들 뿐이고,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속에 슬픔을 안고 죽고 싶지 않다.”

저는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그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끝 -